대학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특성화방안연구

- 2004년도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오 일 환 *

목 차

Ⅰ. 머 리 말
Ⅱ.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
Ⅲ. 대학박물관의 2004년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Ⅳ. 대학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특성화 방안
Ⅴ. 맺 음 말

〈 요 약 〉

대학박물관은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실물 자료를 통하여 문화의 향유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인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전시함으로써 역사문화에 대한 전통문화의 교육기관 역할은 물론 연구 활동에 자료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비록 대학박물관이 시대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학문적인 연구 성과는 물론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음은 커다란 성과이다. 게다가 대학박물관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박물관이나 문화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의 문화기관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박물관이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조사 그리고 교육적 학습자료의 연구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학박물관은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며, 소장 자료의 전문화에 따른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21세기가 지식 경영의 시대,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학술자료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주제어] 대학박물관, 운영실태 조사, 개선방안, 특성화방안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책임연구원

(접수일 :2004. 10. 19, 심사일 : 2004. 11. 25, 심사완료일 :2004. 12.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2003년 2월 현재 339개 기관으로(박물관은 국립30, 공립49, 사립113, 대학84 등 276기관이며 미술관은 국립1, 공립8, 사립52, 대학2 등 63개 기관이다) 86개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대학박물관은 정규교육의 최고과정인 대학교육기관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으로서 학술연구와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교육과정과 중요 교육 지원시설로서 평가되고 박물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교육과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는 운영규정이 있다. 그리고 '대학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학생 뿐 아니라 조사와 연구자들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적, 항구적인 기관이다. 이 뿐 아니라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수집, 정리, 관리, 보존, 전시하며 박물관 자료의 학술적인 조사, 연구,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지역 문화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국공립박물관과의 교류와 협조, 박물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시설'인 것이다[1].

이처럼 대학박물관은 최고의 학부인 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실물 자료를 통하여 문화생산과 향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유산인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전시함으로써 역사문화에 대한 전통문화의 교육기관 역할은 물론 연구 활동에 자료를 제공하고 활성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260개를 대상으로 2004년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의거하였다. 대학박물관은 84개 기관에서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2]. 대학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대하여 이미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 발간되는 『고문화』를 통하여 여러 차례 연구된 적이 있다[3]. 하지만 설문조사에 국한되었거나 또는 현장 실사에 바탕을 두지 않은 문헌적인

1)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5장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제14조(설립 및 운영), 제15조(업무)

2) 필자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정책과제2002-17, 2002.12)에서 대학박물관 분야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전국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실태조사』(2004.5)와 보고서(2004.9)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학박물관의 실태조사 및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2004.5.17)을 발표하였다.

3) 한국대학박물관협회는 1961년에 창간된 『고문화』를 중심으로 21집(1982), 28,29합집(1986), 40,41합집(1992), 44집(1994), 47집(1995), 48집(1996), 50집(1997), 55집(2000) 등에 대학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비롯한 활성화의 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학술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1995년 시작된 학예연구원회에서도 학술발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한국박물관학회에서는 『한국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공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난영), 사립박물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김쾌정),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정징원) 및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이융조) 등의 연구 논문이 있다.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에 대한 실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학박물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이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운영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역할을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및 특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

우리나라의 초창기 대학박물관은 일제의 침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민속자료를 비롯한 문화재를 개인이 수집하여 대학에 기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5년 8월 대학설치 기준령과 1967년 9월 교육 기준령에 의하여 종합대학교는 박물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생들의 등록금에 박물관비가 징수됨으로서 양적 팽창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1970년 1월 대학설치 기준령에 자료와 연구 인력을 제외한 시설면적이 규정되어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 12월에 대학박물관의 법률적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으나 1999년과 2000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대학박물관 조항이 다시 삽입되었다. 이에 대학박물관은 1961년 5월에 18개 대학박물관이 결성된 한국대학박물관협회를 기반으로 양적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 90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미술관의 중요한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대학의 설립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학박물관의 설립 추세는 상당히 둔화되었다. 이는 대학 설치령에 대학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 아니라 대학 운영자들은 박물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운영자들은 박물관에 대한 투자보다는 몇 번의 유적 발굴이나 기증을 받아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무관심으로 대학의 부속기관이던 박물관의 지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박물관은 관계 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자 역시 의욕과 열의를 상실하게 되어 매우 타성적인 운영으로 정체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지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각 지방의 중소도시에도 적지 않게 분포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보다 사립대학의 박물관 수가 많다. 이처럼 지역적인 편중이 따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국 각지의 유적을 활발히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서 해당지역의 자료를 축적하고 보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연구 보고서, 전시 도록 등의 연구 서적을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실질적인 지역 문화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특색 있는 대학박물관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과 보호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 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박물관과 연구소 등의 관련 기관에 연구자를 공급하는 전문 인력 공급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Ⅲ. 대학박물관의 2004년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260개를 대상으로 2004년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의거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람하고 박물관의 운영현황을 현장 조사하여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 전망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항목으로는 전시관련, 사회교육(문화체험)관련, 소장품(유물)관련, 시설운영관련, 홍보와 정보화 관련, 학예사 자격제도와 함께 자원봉사자 운영, 운영자문위원회, 인적구성현황 등이었다.

2004년도 운영실태조사에 참여한 60여개의 대학박물관은 특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박물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수한 전문인력과 충분한 전시 공간 그리고 유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몇몇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은 극히 운영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1) 시설과 재정

대학박물관은 대체적으로 종합박물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80여개의 기관에서 30여개의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독립 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 및 수장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빈약하여 유물의 전시 및 보관 관리 상태도 대단히 허술한 곳이 적지 않다. 이처럼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대학의 구성원에게도 외면되고 있다. 그리고 소장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전시나 수장하고 있는 훌륭한 자료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 및 교육활동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

4) 오일환, 2001.「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역할」『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7집, 315-329.

대학박물관은 대부분 고고, 역사, 민속분야를 전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유적 조사에 치우친 학술활동으로 인하여 고고 분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인원으로 조사활동과 박물관 운영을 병행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다른 기능을 충실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30여개의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은 복합공간에 더부살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환경이나 보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대학마다 편차가 크지만 보통 400평 정도의 면적에 전시실 면적이 300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고 면적이 협소하고 보존환경이 열악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실을 최대로 확보하고 전시하는 형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 및 교육을 위한 공간이나 이용자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으로 독립적인 건물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용자 위주의 공간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내부의 시설로는 도난경보기 등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보안을 위하여 경보기 및 무인카메라 등의 폐쇄 회로 등을 설치하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근무 체제로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하론이나 스프링클러의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휴대용 소화기나 기타시설의 분포도 여전히 높다. 그리고 뮤지움 숍, 식당, 휴게시설 등은 복합 건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분야에서는 대학의 규모나 운영체제에 따라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독립된 건물과 운영체제가 구축된 대학박물관일지라도 연간 예산이 1억에서 2억에 이르는 경우는 불과 십여개 기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박물관은 5천만원 내외이지만 적게는 몇백만원 혹은 아예 배정되지 않은 박물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대학교의 운영 목표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의 연간 예산이 답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물관의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박물관은 유물구입비보다는 조사연구비, 교육활동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연구비 보다는 교육활동 등에 더욱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수익행위 등에 대한 회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과 표준화된 시설 및 운영안의 체계적인 보급과 관리가 필요하다.

2) 조직과 전문인력

대학박물관은 일반 보직화되는 관장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학예연구원을 임용하여 일정하게 박물관의 운영방향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장은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보다는 보직 임용과 겸직이 보편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장의 역할 수행에 학과 강의가 예상보다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그다지 크지 않은 형식적인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새로운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5].

대학박물관의 전문 인력인 학예사는 대부분 2명 이하의 인원으로 경영행정 인력과 학예연구 인력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계약직 등의 증가로 인한 인력 관리의 새로운 정립과 함께 전문 인력의 확충 및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6].

전문 인력인 학예연구원이 절대 부족하고 승진 기회가 아주 적거나 없는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학예직으로서 자긍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예연구원은 신분의 불안정과 의욕 상실로 인하여 매우 소극적인 활동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된다. 이에 대학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이 신분에 대한 불안, 차별대우, 미래에 대한 비젼의 부재, 소홀한 책임의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예연구원은 사무직과 행정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사립대학은 대체로 겸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교를 박물관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금의 여건으로는 실질적인 박물관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3인 이상의 전임직원이 학예, 행정, 보존관리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승급 및 승진 등에서 타 직종보다 열악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보존처리, 전시, 연구, 교육 활동을 위한 연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예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예사 자격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절반이 경력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턴쉽의 운영은 거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예사 제도의 존속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학예사 자격제도의 보완 및 개선책 마련하고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학별 학예사 명칭에 대한 체계화 및 통일을 기하고 학예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예사는 교육자이며 연구자의 신분을 확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전임 연구교수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예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ID카드를 발급하여 문화기관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한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지원책이 별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7].

---

5) 하계훈, 2001.「뮤지엄경영에 있어서 관장의 역할」『예술과 경영』유민영박사 정년기념논총(서울 태학사):144-161.
6) 윤금진, 2003.「박물관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학예사를 중심으로」『박물관학보』(한국박물관학회)6:261-288.
7) 오일환, 2004.「전문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제1회 박물관 정책세미나-공사립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국립중앙박물관):111-162.

3) 소장품 관리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매장문화재가 50여 만점을 넘고 있지만 전시면적이 협소하여 최소한의 수량만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5일정도 개관하고 있지만 개관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시설 미비와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공개에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박물관 자료의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각 박물관이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 검색 명칭의 통일과 공통 분류방안 작성, 분류방안을 표준화하는 형식의 제정 등의 작업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를 표준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활동에 적극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관리시스템은 35개 이상의 기관이 활용하고 있으나 미활용 기관도 25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산관리에 대한 전담인력의 지원이 필요한데 인턴과 전담인력으로 대학원생 및 전공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또한 표준관리시스템 보급의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보의 공유 및 정보화를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장품 관련의 전문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표준화방안과 전산화를 위한 적극적인 뒤받침이 따라야 한다[8].

대학박물관의 소장품은 5천점 이상의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 34개 기관이고 3천5백점이상이 9개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2천점 내외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는 기증이나 기탁 혹은 설립자의 개인 소장 자료가 대부분이지만 발굴로 인한 위탁관리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소장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위탁수리가 대부분이며 10여 기관이 자체수리를 병행하고 있다. 소장품의 관리는 유물대장, 사진촬영, 유물카드 등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전산관리는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것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물구입비는 1천만원 이하 이거나 혹은 3천만원 이상으로 점차 양극화하면서 증가하고 있으나 1천만원 이하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발굴 유물 등의 위탁유물에 대한 시설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집중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50여 만점이며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에서 80%에 가까운 유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립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전시와 조사연구

대학박물관의 특별전(기획전)은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략 2천만원 가량의 예산으

8)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문화 관련의 정보화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자료정보시스템구축(1998)국립박물관 소장유물DB구축(1998), 문화재정보DB구축(1998),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구축(2000),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2000), 문화예술정보화사업(2000), 문화재 통합관리 및 정보공동활용시스템구축(2003) 등을 개발한 성과가 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통합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화는 매우 미진한 형편이다.

로 3개월 이내로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은 시대순, 장르별의 분류전시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며 고고와 역사 위주의 전시형태이다. 전시 관련의 도록은 대부분 기관에서 발간하고 있지만 24개 기관이 미발간 상태이며 전시관련 예산은 1천만원 이하가 약간 감소하고 2천만원 가량이 약간 증가했다.

이러한 전시분야에서 대학박물관은 연합전시회 및 중장기적으로 공동주제를 설정하여야 하며 학문적 연구결과 및 학제 간의 연관된 전시회 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비용 보조 및 도록발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의 전시결과가 문화 업적 혹은 연구 업적으로 등록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조사연구 활동은 정기 학술지 발행,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조사 등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초창기의 연합전시회와 강연회를 주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유적 발굴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가속화된 국토개발과정에서 문화유적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매우 커다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 인력을 배출함으로서 현재의 전문기관에 많은 연구자들이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이 교육적 기능보다는 조사 기능에 적지 않게 편중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표출되었다[9].

그 동안 대학박물관은 조사 분야에 치중하면서 본래의 교육적 기능에 소홀하게 되자 이용의 주체가 되어야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들의 무관심을 초래하여 보물창고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근거를 취득하지 못하였던 절대 다수의 대학박물관이 2001년 교육인적 자원부가 아닌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시작함으로서 대학박물관은 거대한 문화 시장의 경쟁체제에 첫발을 내놓게 되었다[10].

5) 사회교육과 문화체험

대학박물관의 교육대상은 대학생과 교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할 뿐 아니라 활발한 사회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구성원들에게는 외면당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박물관 교실 혹은 교양 개설하

9) 문화재청에서는 「긴급 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2004.10.15)이라는 학술행사를 마련하여 발굴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0) 이러한 문제는 사립박물관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박물관학회에서는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한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이돈종)을 비롯하여 한국의 사립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방안(김쾌정), 박물관 방문객 분석에 의한 기업박물관의 운영 전략(조한희), 사설미술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김윤순), 사립박물관의 문제점과 운영개선안(강해중)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물관학보』4, 2001; 49-93.

고 있으나 조사활동보다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1].

대학박물관은 23개 기관이 답사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38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지 않다. 평균 2회 정도의 운영에 5백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2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의 강화를 위하여 49개의 기관이 사회교육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과 문화체험에 대한 국가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자재 지원 등 운영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자에게는 교육비 및 여비를 포함하여 무료로 참가하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하며 전문교육 이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2].

6) 홍보와 정보화

대학박물관의 활동에 대한 홍보는 브로슈어에 의한 방법이 대부분이며 교내신문을 이용하고 있다. 홍보전담인력은 4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10여개 기관의 홍보비가 2백만원 가량이고 문화상품의 개발이 대부분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구성을 압도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나 서버 장비 등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박물관의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5백이하가 10여개 기관이며 1천회에서 3천회 사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홈페이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통합적인 홍보 및 네트워크 구성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역 혹은 테마별 연계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상품 판매 및 공동 개발, 서버 등의 장비 공동 사용과 함께 비영리 기관인 대학에서의 운영 수익에 대한 처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록 및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비 지원을 모색하며 등록번호 및 공동 로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3].

---

11) 한국박물관학회에서는 『박물관과 교육』을 주제로 제12회 박물관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미국박물관협회와 박물관교육위원회의 역할(조한희),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방안연구-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서명애), 21세기 박물관과 교육자료의 활용(김은정), 어린이 박물관 특수성의 배경과 이해(김이삭), 광복이후 한국박물관의 성격변화에 대한 고찰-박물관 관련법규를 중심으로(최석영) 등의 글이 있다. 『박물관학보』6, 2003:21-152.

1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대학박물관의 사회교육기능』(학예연구원회 제6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00.4.21

13)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대학박물관의 홈페이지는 회원교의 활동이나 홍보와 관련된 정보의 교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담인력이 없이 회원교의 학예사가 부수적으로 홍보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운영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Ⅳ. 대학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과 특성화 방안

대학박물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재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최고의 학문기관인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대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평가 항목에서 기타 지원시설로 분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령에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박물관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학박물관이 발굴 및 위탁 유물 등의 보관에 대한 보존관리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학예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명칭 및 평가 그리고 대우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연구직제의 하나로 전임연구교수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학박물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인력지원기관 그리고 나아가 통일 이후의 남북문화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박물관의 정체성 확립

앞으로 대학박물관은 다양한 이론의 정립과 확고한 운영철학으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에 박물관이 왜 필요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에 박물관이 있으면 어떠한 점이 좋은지, 일반 박물관과 어떻게 다른지 등 대학박물관의 특성과 운영 그리고 활동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박물관장이나 학예연구원들이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내외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자기의 존재 가치 역시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대학박물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박물관은 타 박물관과는 달리 교육 및 연구기능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특화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과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박물관의 성격이 아닌 전문화 또는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공립박물관과 중복을 피하고 지역 사회에 다양한 문화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국공사립박물관에만 지원하던 각종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대학박물관에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박물관 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학 설치령 의무시설로서의 대학박물관

대학박물관은 대학 설치령에서 박물관 의무설치 조항이 폐지된 이후 시설 규모나 자료의 수집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의 신규건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설치령에 박물관을 의무시설로 명시하는 조항을 부활시키고 대학평가에서 박물관이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평가대상에서 기타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박물관 활동의 활성화 및 대학당국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유물의 완벽한 보존과 체계적인 전시활동을 통한 교육효과의 증대하기 위하여 전용 건물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 대학박물관의 전임 학예연구원 확보 및 위상 강화

대학박물관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 맞는 전임직원의 확보와 이들의 위상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문직 전임연구교수제와 연구직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임직원에 대한 재교육의 기회와 연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공동프로 그램의 개발로 학술과 연구, 교육적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학예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 자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전시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전문적인 연구교육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축적된 지식을 상품화하고 이를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지식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학술단체의 육성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14].

과거의 박물관이 학예연구원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된 박물관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학예연구원이 박물관의 유일한 전문 인력으로서 박물관의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였으나, 이제 학예연구원은 소장품의 연구와 전시기획만 담당하고 자료 등록원, 보존전문가, 전시디자이너, 교육전문가, 자원봉사관리자, 홍보전문가, 마케팅전문가 등 다양한 박물관 전문직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박물관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에 따라 학예연구원이 본연의 연구, 전시기획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는 박물관 효율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박물관 전문인력 훈련 프로그램도 전문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예사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한데 박물관 설립에 의무 적으로 연구직제로서의 학예사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물관의 재직경력에 따른 경

14) 오일환, 2004.「전문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제1회 박물관 정책세미나-공사립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국립중앙박물관), 111-162.

과규정을 두어 학예사 자격과 학예 연구직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대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예 연구직은 일반 행정직과는 업무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무평가기준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예 연구직의 직무평가기준은 연구업적, 학술활동, 교육활동, 유물전시, 사회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우하여야 한다[15].

4) 종합박물관에서 전문박물관으로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의 설립이 많아졌지만 대학박물관의 신설은 부진하였다. 외국에서는 대학박물관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박물관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 분담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학박물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물관 설립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종합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대학박물관은 특색있는 전문박물관이 되어야 한다[16].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부족하고 학교마다 시설이나 설비의 커다란 격차는 있겠지만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 박물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17].

또한 대학박물관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를 집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화 연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대학박물관 운영 방침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수행해 가야하며 이를 통해 학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존재 가치와 위상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문화유적 보존과 보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학내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서비스센터로서의 확대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위탁관리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비 지원

대학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 지원

---

15) 오일환, 2001.「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역할」『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제57집, 315-329. 대전보건대학 박물관학연구소『박물관 전문직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제3회 박물관학연구소 학술대회)1999.10.15

16)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근현대생활사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관 2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2004.12.8)을 개최하였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최근 5년간 근현대생활사관련 전시회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전문박물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모색과 시도이다.

17) 한국박물관학회, 2000.12.「전문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박물관 학보』3, 40-158에는 박물관의 전문화(이난영), 고고역사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종선), 민속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종철), 자연사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이병훈), 과학산업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방안(정동찬), 미술사 박물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김홍남), 근현대미술관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오광수) 등의 글이 있다.

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장고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대학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관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박물관미술관법에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교육,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학박물관은 유물의 보존관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산인 매장문화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용역 발굴 위주에서 기획 발굴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근래까지 대학박물관이 유적 발굴조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발굴전문법인의 등장으로 대학박물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대학박물관이 용역발굴에 치중하던 역량을 교육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학술연구 목적의 계획적 발굴위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예연구원도 본연의 연구 활동과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실력을 갖추고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능력과 실습기능을 보유한 대학박물관이 문화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학예연구원들에게는 업적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전임교수와 전문직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설치 기준령에서 대학박물관 설치조항을 부활하는 등 대학박물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학 평가에서 박물관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전시 및 교육기능 강화

대학박물관은 교내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의 일부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과 지원규모가 소홀히 되어 활동 역시 위축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장과 학예연구원들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박물관의 필요성과 무관심한 학내구성원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며 박물관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병행하여야 한다.

특히 학내 구성원에 대한 박물관 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확보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을 경험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용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시 내용이 어렵고 유물 나열 중심의 무성의한 전시보다는 소수의 전문가나 전공학생을 위한 전시로 구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치밀하게 계획된 전시가 필요하다. 다소의 학교 구성원을 위한 쉽게 이해하는 전시가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진지한 고민 속에서 전시에 대한 지식, 기술, 정성을 바탕으로 전시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학박물관은 발굴조사 기능보다는 학술연구와 교육자료를 통한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학술연구를 교육적 자료로 전환시켜 주는 문화의 저장소, 문화은행이 되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사회문제에 대한 이념성적 전시, 역사와 컴퓨터를 접목시키는 정보화 전시, 남북간 문화공동체를 위한 통일 교육전시, 발굴 이후의 유적지 주변의 현재 모습 등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박물관답게 시의적절하고 미래 지향적인 전시 자료를 찾아내야 한다[18].

이와 함께 대학박물관은 다양한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풍부한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운용, 연구자료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의 확대, 사이버 전시와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화사업,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시교육의 강화, 대학 강좌와 연계된 학습 및 교육 등은 대학박물관이 나가야 할 교육의 방향이다.

7) 사이버 공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대학박물관은 사회단체들과 대중적 연대를 강화하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과감한 대외 교류의 확대와 함께 국내외의 문화적 접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적응력과 환경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박물관을 활용한 학교 교육의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종사자와 사회교과 담당 교사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역사 지리학이 통합된 문화강의 개설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성과를 재정리하고 이를 사진, 도표, 영상매체를 이용한 시각화 자료의 구축과 함께 사이버 문화의 중심체로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들어 초, 중등학교의 사회교과과정이 사회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편되었다. 사회교과 과정은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의 빠른 조류 속에서 지리, 역사,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탐구활동과 정보의 수집, 활용 등을 통한 자기 주도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지리, 실제 생활의 삶과 경험을 소재로 탐구하고 직접 조사하여 토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활용과 사진, 지도, 주변정보 등을 문화와 연결하는 구성과 퍼즐, 마인드맵, 신문기사의 활용 등

18) 한국박물관학회,「북한의 박물관 및 미술관 활동과 남북 교류증진을 위하여」(2002.12『박물관학보』5, 21-56에서 북한의 박물관과 문화유산(유홍준)을 비롯하여 통일을 위한 박물관 활동과 교류증진을 위하여(신용철), 남북미술의 현황과 과제(이종상), 북한의 박물관(하문식)의 글과 남북한 박물관의 교류와 협력방안(최광식), 2003.12.『박물관학보』6, 17-19.

기존의 교과 과정과는 매우 다른 수업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19].

이러한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은 학술적 연구 교육과 전시자료를 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하는 최상의 교육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여야 하고 개편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을 지향하는 박물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더욱 신선한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V. 맺 음 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민족적 자각에 의한 국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전자매체의 급속한 보급과 발전에 따른 급속한 문화적 교류의 충격에 기인하고 있다. 지식 경영의 시대,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는 대학박물관 뿐 아니라 박물관의 전문 인력들이 이러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학술자료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지적 재산권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박물관은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박물관이나 문화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의 문화기관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전시공간 그리고 유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몇몇 대학박물관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대학박물관이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조사 그리고 교육적 학습 자료의 연구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박물관이 비록 시대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학문적인 연구성과는 물론 우리나라의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유적 조사와 구제 발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문화유산의 보호에 막대한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 인력과 학술적 연구기능을 폭발적으로 재고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0].

---

19) 오일환, 2001.「대학박물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아우르기」『미술세계』 201호(월간 미술세계), 54-57.

20) 이러한 인식은 「기획 대학박물관을 말한다」를 특집으로 마련한 월간『미술세계』에 대학박물관의 힘(나선화), 문

이처럼 대학박물관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은 우리나라의 박물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박물관의 열악한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박물관인들의 활기찬 의욕과 함께 대학이라는 연구기관의 성격에 부합된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는 대학박물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전문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대학박물관은 법적근거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 노력과 독립적 재정확보를 위한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학박물관은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최고의 학문기관인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학박물관은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평가 항목에서 기타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치령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박물관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마련되거나 대학의 평가항목에 문화시설로 재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예사 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명칭 및 평가하고 대우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연구직제의 하나로 연구전임교수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학박물관의 발굴 및 위탁 유물 등의 보관에 대한 보존관리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학박물관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역할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인력지원기관 나아가 통일 이후의 남북문화통합의 중추적인 역할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화공간으로 거듭나는 대학박물관(김우림), 대학박물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아우르기(오일환), 대학박물관 학예사가 나아가야 할 길(최종호), 특성화된 대학박물관(김경섭) 등의 글에서 논의하고 있다. 2001.『미술세계』201호 (월간 미술세계)

〈참고문헌〉

한국대학박물관협회『고문화』, 한국박물관학회『박물관학보』

국립중앙박물관, 2004.『전국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실태조사 보고서』, 1187.

국립중앙박물관, 2004.『공사립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1회 박물관 정책세미나 발표집)』, 18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박물관 미술관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21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박물관 미술관 학예사제도연구』.

오일환, 2004.「전국공사립대학박물관 운영실태조사」발표회(국립중앙박물관), 40-42.

오일환, 2004.「전문인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제1회 박물관 정책세미나공사립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립중앙박물관), 111-162.

오일환, 2001.「대학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학예연구원의 전문직 역할」『고문화』제5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15-329.

오일환, 2001.「대학박물관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아우르기」『미술세계』201호(월간 미술세계), 54-57.

오일환, 1998.「중국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하여-대학의 고고박물관교과과정을 중심으로」『박물관학보』제1집 (한국박물관학회), 195-218.

윤금진, 2003.「박물관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학예사를 중심으로」『박물관학보』6(한국박물관학회), 261-288.

양현미, 2001.「박물관연구와 박물관 정책-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홍익대학교 대학원).

하계훈, 2001.「뮤지엄경영에 있어서 관장의 역할」『예술과 경영』(태학사), 144-161.

The study for the role and reinforcement plan of university museum

Oh, Il-Whan

The major role of university museum is the enhancement of cultural level for both students and citizen by means of exhibiting stored heritage materials. University museums play important role in providing research and education service about traditional culture by preserving and displaying heritage materials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Moreover, since university museums are widely located in south korea, it plays as public cultural organization for citizen at some regions where don't have any public cultural organizations or national museums. Although university museum didn't respond with the change of the time actively and aggressively, it has greatly obtained the excellent result of scholastic research and the suggestion of the way of university museum.

Even though university museum has many positive achievements at scholastic study and cultural research of educational materials about cultural heritages, it is faced on difficulties in searching the new roles of university museum. So university museum should aggressively prepare legal supporting for developing the advanced role and study specific reinforcement plans based on stored materials. For the coming 21 century representing as the era of knowledge based society and cultural centered society, university museum should need more efforts to make new value creating mode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using educational services based on scholastic study and cultural research.

[key word] university museum, role and management, developing and reinforcement plan.